MBC + 박은석 · MBC 특수영상제작실

Concept from Philosophy

1부. Concept from Philosophy | 2부. Design from Art | 3부. Technic from Training

MBC에서 "특수영상제작"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무려 15년 전이다. 그 당시부터 시작된 훌륭한 선배들의 뛰어난 실력과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의 특수영상제작실이 뿌리를 내리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당시 엔지니어들로서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으나, 현재는 드라마, 예능, 교양 할 것 없이 많은 제작현장에서 특수영상제작실의 업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상파에서도 엔지니어로 구성된 다소 특색 있는 MBC 특수영상제작실을 새로운 엔지니어의 길을 열어준 롤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방송과 기술〉의 의뢰로 시작된 3개월간의 연재에는 근 1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필자가 보고 느꼈던 특수영상제작의 세계에 대한 소개와 일에 꼭 필요한 자질,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남겨진 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콘셉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4주후애라는 프로그램의 오프닝 타이틀]

왼쪽은 러프한 콘셉트 시퀀스이고, 오른쪽은 실제 타이틀 시퀀스이다. 콘셉트와 거의 동일한 오프닝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영상작품들은 콘셉트아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제작하였지만, 앞으로는 영화, 방송에서도 타이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2D 또는 3D로 프리비쥬얼(pre-visual)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왜 프리비쥬얼이 중요할까?

콘셉트를 미리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본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정보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시각화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오프닝을 만들 때 콘셉트를 대충 잡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힘들다. 때때로 어떤 작품(필자는 오프닝 타이틀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한다)들은 지나치게 테크니컬하고, 또 어떤 작품들은 그림은 예쁜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콘셉트 미스일 때가 많은데, 콘셉트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방송환경 자체가 콘셉트를 제대로 구상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MBC특수영상제작실의 총 근무인원은 불과 4명인데 드라마부터 예능, 교양까지 숨이 찰 정도의 업무량에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작업에는 될 수 있으면 러프한 스케치라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MBC스페셜〉은 다양한 그림을 MBC라는 틀 안에 담는 콘셉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맨 처음의 그림을 콘셉트로 잡았다.

〈춘자네경사났네〉는 주인공 춘자의 이미지와 비슷한 색동을 기본 콘셉트로 하였으며, 맨 처음의 색동 이미지에서 출발하였다.

[멀티분할화면이 기본 콘셉트인 〈MBC스페셜〉 오프닝 타이틀]

[색동이 기본 콘셉트인 〈춘자네경사났네〉 오프닝 타이틀]

콘셉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풍부한 감성일 수도 있고, 신선한 상상력일 수도 있으며, 젊음과 패기, 또는 연륜과 지혜일 수도 있겠다. 바로, 작업자 스스로 평상시에 다양한 서적과 영화나 연극 등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폭넓은 철학적 이미지를 형성해야만 한다.

가끔 특수영상을 하면서, 스스로 제다이의 마스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련한 작업자가 되는데 오랜 숙련의 시간이 걸리고,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쉬운 작업이라도 하나의 작품은 거울과 같아서, 작업자의 내면을 고스란히 비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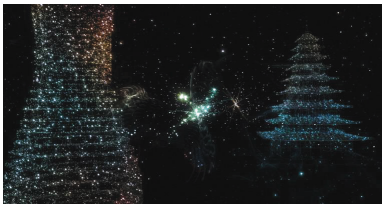
[배우는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콘셉트, 〈MBC주말의 명화〉 오프닝 타이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흥분과 기대의 콘셉트, 〈크크섬의 비밀〉 오프닝 타이틀]

[강력범죄에 대한 하드보일드 콘셉트, 〈히트〉 오프닝 타이틀]

[꼬리 감춘 귀여운 여자들이 콘셉트, 〈발칙한여자들〉 오프닝 타이틀]

[눈꽃처럼 빛나고 아련한 슬픔의 콘셉트, 〈나쁜여자착한여자〉 오프닝 타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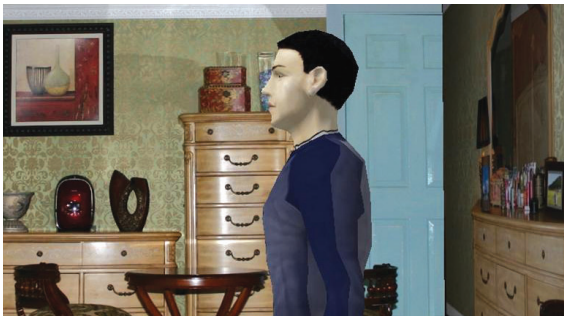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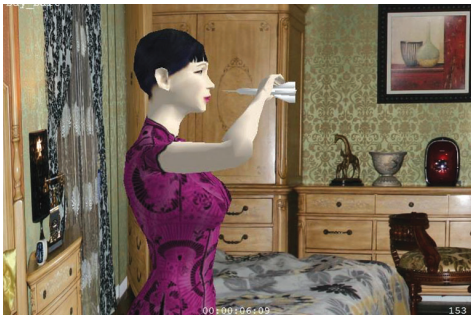
[별로 이미지화한 봉황으로 선덕여왕을 표현하는 콘셉트, 〈선덕여왕〉 오프닝 타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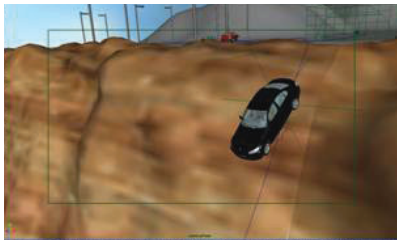
지금까지 간략하게 오프닝 타이틀을 만들 때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만드는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색깔(특성)이다. 어디서 본 듯한 효과나 느낌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면서도, 프로그램의 느낌과 잘 매치시키고, 음악과는 완벽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발짝 나아가 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을 요약해서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프리비쥬얼은 콘셉트를 표현하는데도 쓰이지만, 후반에 그래픽을 합성한다던가, 위험한 차량 충돌 장면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위험한 장면을 리허설하고, 최종편집을 고려하여 촬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장면들은 대본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2D 스토리보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시퀀스로 가편집본을 보여주면 PD/카메라/스텝들 모두 촬영할 장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트를 사람을 향해 던지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을 그래픽으로 처리할 것인지 PD의 의뢰가 있어서 알기 쉽게 스토리보드화 하였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완벽한 호흡을 알 수 있다.





차량 충돌 장면을 미리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실제 차량 충돌 장면은 한번이상 촬영할 수 없고, 카메라 앵글을 미리 정해서 정확한 시퀀스로 찍어야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3D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촬영에 임하면, 실수 없이 완벽하면서도 보다 안전한 촬영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프리비쥬얼 작업들은 큰 기술이 없어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고, 점차 그 범위가 확산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엔지니어들의 도전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엔지니어들이 특수영상의 세계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분야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